

팔만대장경을 지킨 공군 장교, 김영환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팔만대장경(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수호 공적비’가 있습니다. 이 돌로 만든 비석은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영환 대령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p>팔만대장경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p>	<p>해인사 장경판전</p>	<p>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p>

이미지출처 :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하늘에서 적을 공격하는 공군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6·25 전쟁 중에 해인사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인사에 북한 군인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인사 안에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인 장경판전이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나무판에 새긴 것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결국 김영환 대령은 팔만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이끄는 부하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인사에는 폭탄과 로켓탄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북한군을 기관총으로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해인사를 당장 폭탄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았지만, 또다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김영환 대령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모든 걸 알고 있던 공군 참모 총장이 자세한 상황과 이유를 말해서 다행히 사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은 김영환 대령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 덕분입니다.